

파리 광장 리노베이션 현황과 의의

유무종
프랑스 건축사, 도시설계사

파리의 심장을 바꾸는 7개 광장의 변화

광장은 도시의 상징적인 장소이다. 프랑스혁명 이후 파리의 광장은 시민들의 의견과 쌓여 온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오늘날에도 많은 협회가 자신의 의지와 의사를 전달하고 표현하기 위한 모임의 장소로 사용하지만, 파리 시민들은 평소에 광장의 목적을 시위나 집회에 두지 않는다. 빈 공간을 여가와 사색 그리고 산책을 위한 장소로 인식하고 사용한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파리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도심 속 주요 7개의 광장을 재건축하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도 그 과정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의 필요에 맞추어 미래를 대비하는 그들은 어떠한 형태의 광장을 만들어 가고 있을까?

광장 재건축의 목표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공공간이라는 새로운 용도에 맞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부드러운 이동성과 대중교통 사용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요구 사항을 고려한다. 그리고 광장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그 맥락을 회복한다. 동시에 혁신적 디자인의 가구를 설치하여 스포츠·문화 및 예술 활동 그리고 휴식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도심 속 정원의 기능을 갖추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환경을 보호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바스티유 광장, 나시옹 광장, 팡테옹 광장, 감베타 광장, 마들렌 광장, 데 페트 광장 그리고 이탈리아 광장 등처럼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공간을 파리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이번 재건축의 목표이다. 모든 장소에 통용되는 공통된 목표는 협의를 통해 상당히 빠르게 나타났으며, 그들은 평화롭고 다양한 쓰임의 장소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전례 없는 집단적 접근

이들 광장의 변화의 시작은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광장 재건축을 시작하기 위한 조사는 시민 참여와 예측에 기반한 혁신적인 접근의 대상이 되었다.

2015년부터 광장 재건축을 위한 전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각 지역구 시청에서는 그곳에 열릴 광장의 계획을 전시하였다. 동시에 지역 주민, 이웃 회의, 보행자 협회와 함께 수행되는 협의의 일환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자전거 이용자와 장애인, 노약자 등의 공간 이용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8,500명의 시민이 150회의 회의와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7개의 광장을 두고 ▲더 많은 초목과 보행자를 위한 공간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호된 공간 등 2,000건이 넘는 의견이 모였다.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원하는 바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파리시 도시 관련 부서는 역사문화유산 및 교통과 같은 여러 주제에 대해 파리교통공단(Régie Autonome des Transports Parisiens: RATP) 부서와 협력하여 광장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2017년 건축가, 조경가, 민족학자, 젠더 및 통합 전문가로 구성된 4개 그룹이 파리 시민들과 함께 광장을 공동 설계하고 건설하도록 위임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각 구역의 거주자 및 주민 협회와 함께 광장 디자인을 위한 개별 인터뷰, 디자인 워크숍, 탐험 산책, 가구 제작을 수행하였다.

즉 그들은 3년 동안 공통점이 있는 장소(사례들)에 대해 함께 생각하면서 그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강화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진 셈이다. 이는 지역적이면서 국제적이고 독특하면서도 보편적인 그들의 삶을 콘퍼런스와 세미나를 통해 미래의 광장에 함께 투영하는 것이었다.

전문가 그룹과 참여 시민들은 아이디어를 공공장소에서 테스트하고, 관찰하고, 듣고, 조정하였다. 예를 들어 나시옹 광장의 경우, 도로 공간을 점유하여 광장 중앙의 녹지면적을 늘리기 위해 콘크리트 블록을 배치하여 도로 폭을 줄이고 교통 문제의 결과를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는 콘크리트 블록이 차량 통행으로부터 소음을 방지해 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로의 매립된 부분이 자전거를 배우거나 연습하기 위한 젊은 층에 인기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음을 감

©Mairie de Paris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광장 재건축을 위한 세미나

©Nathan Dubois



나시옹 광장 개발 전, 콘크리트 블록을 배치하여 차량도로 폭 개선후의 상황을 관찰하는 모습

소시킬 수 있는 가장 자리를 도로 옆에 배치하고 도로 폭을 줄이는 것으로 프로젝트 계획을 수정하였다.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롤링 트랙에서 파리 시민들이 조깅을 즐기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이렇듯 파리는 참여하고 실험하는 방식을 통해 현재 사용에 기반한 변화를 수용하고, 예상해야 하는 미래 사용을 예측하고, 모든 사람의 사용을 원활하게 하는 공공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광장 재건축 사업진행 타임라인

2015년 6월 17일	파리 공의회 프로젝트 목표 및 협의 양식 채택
2015년 6월 20일	바스티유 광장에서 안 이달고 시장이 현장 조사 시작
2015년 9월 25일	규제 협의 종료
2015년 겨울	7개소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개발
2016년 4월	사전 상담 종료
2016년 6월 20일	파리이사회 협의보고서 승인
2016년 7월부터	공동 건설을 시작하기 위해 광장마다 전문가 지정 및 점진적 배치
2016~2017년	세부 연구 구현, 공동 건설, 행정 승인 요청 및 기업 상담
2018~2019년	장소에 따라 도로 공사 시작

국내의 시사점

최근 국내에서도 광장 재조성이나 차 없는 거리에 관한 공모가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의 광장은 단순한 도심 속 빈 공간을 떠나 필요한 도시 인프라를 채우고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별로 ‘광장을 개선하여 어떠한 삶의 형태를 만들고자 할 것인가’에 대한 저마다의 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이러한 저마다의 생각과 관점을 한곳에 모으는 플랫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

람이 이용하고 필요로 하는 기능을 어디에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 광장이 내가 사는 지역과 도시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과연 나의 삶의 질이 어떻게 개선될지에 대한 물음을 도시민에게 갖게 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즉 전문가의 시선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가가 우리가 답해야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저 예쁜 혹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형태의 광장이나 시설들이 준비한 눈요거리 정도의 행사에 그치게 될 것이다.

미래 사회에 절실히 요구되는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점점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에 맞는 시설의 확보, 스타트업이나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딛고자 하는 젊은 세대를 위한 공간 등 우리가 광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많다. 광장은 그 융통성을 활용하면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광장의 성격을 살리려면 앞으로 그 장소를 사용할 지역구 시민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파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와 정책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문가들 역시 세미나를 통해 때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때로는 지식을 공유하는 등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많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며 반영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파리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의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나아가 실제 생활에서 직접적인 실험을 통해 사업 변경의 폭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보다 현대의 요구에 맞는 시설과 디자인을 고려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이처럼 파리는 함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광장별로 편성된 전문가들이 관련 구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는 아틀리에

모두가 완전히 참여하는 접근방식을 설정하려 하였다. 7개 광장의 재건축은 파리 시민과 이용자들이 이러한 공간의 재창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제시되었다. 시민들은 건축가, 조경가, 민족학자, 통합 전문가로 구성된 팀과 함께 도시를 경험하고 미래 장소의 일상을 재창조하며 재생 불가능한 것을 제한하고 가능한 모든 것(물리적 부분과 역사적 맥락과 같은 관념적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었다.

도시 관련 사업은 시민들과 동떨어진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내일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생각과 확신 속에 파리지 광장 재건축 프로젝트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많은 국내의 도시 관련 사업, 특히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에 있어 전문가와 사용자 그리고 담당기관의 협력 및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1 Mairie de Paris . (2016). Bilan de la concertation – bilan global. <https://cdn.paris.fr/paris/2019/07/24/cbad880cccd256a0a669bd98084fa75af.pdf>
- 2 Mairie de Paris . (2016). Bilan de la concertation – syntheses détaillées par place. <https://cdn.paris.fr/paris/2019/07/24/a7d3427114e64ac01ef27760c8c349ac.pdf>
- 3 Mairie de Paris . (2016). Tout savoir sur les projets de réaménagement des sept grandes places parisiennes. <https://cdn.paris.fr/paris/2019/07/24/ec5f00d2662876850af3badd0a42e72a.pdf>
- 4 Mairie de Paris, Apur, Les Docks. (2015). Réinventons nos places(Brochure). https://www.apu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publication/documents-associes/Brochure_seminaire_places_29mai2015_0.pdf?token=ArYs2V00
- 5 파리 도시계획과 홈페이지. <https://www.apur.org/fr/nos-travaux/reamenagements-7-places-parisiennes>